

2024년 6월 13일 목요일

NSW 전역에 독감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65세 이상자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촉구

주 전역에 독감 환자가 계속 속출함에 따라 65세 이상자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.

NSW 의무 국장인 케리 찬트 의사는 최근 발표된 [NSW 보건부 호흡기 질환 동향 보고서](#)에 따르면 2024년 6월 8일로 끝나는 주에 독감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지난 주보다 25%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

"독감은 주 전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만 해도, 독감류 질환으로 우리 주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이 거의 22 퍼센트 증가했습니다"라고 찬트 의무 국장은 말했습니다.

"우리는 독감 시즌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독감 보호책인 무료 독감 백신을 예약하실 때입니다.

"이 점은 독감에 걸릴 경우 심한 병치레를 할 위험이 더 높은 65세 이상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며, 불행하게도 해당 연령대 예방접종률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"현재 NSW 주민 중 65세 이상자의 절반 (52.4 퍼센트)만 독감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."

독감, 코로나19, RSV 모두 지역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, 보건부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,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 환경 방문을 피하도록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.

감염 및 심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백신이 최선책입니다. 모든 사람, 특히 심한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접종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. 백신을 접종하면 본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

독감 백신은 무료며 독감으로 인해 심하게 병치레를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손쉽게 백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정의를 통해, 5세 이상은 누구나 약국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.

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독감으로 인해 심하게 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간주됨으로 무료 독감 주사를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.

- 65세 이상자
- 생후 육 개월부터 오 세 미만 아동
- 원주민 중 생후 육 개월 이상인 자
- 임산부

- 당뇨병, 암, 면역 장애, 중증 천식, 신장, 심장, 폐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.

코로나 19, 인플루엔자, RSV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독감 및 코로나-19 권장 백신 제때 접종
- 아프면 집에서 쉬고 집을 나서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
- 옥외에서 만나거나 문과 창문을 열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에서 모임 갖기
- 혼잡한 공간 피하기
- 독감에 걸리면 심하게 앓을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신속 항진 검사(RAT) 고려
- 코로나 19 또는 독감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경우 지금 의사와 상담하여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,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논의하는 등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 세우기
- 본인이 아프거나 코로나 19나 독감 양성 결과가 나왔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기
- 손 씻기 등 손 위생 관리 잘 하기.